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10 2024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法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 2024 / 10

시절 인연	02	법을 보는 사람은 여래를 본다
법정 스님 따라 하기	06	불살생의 공덕
법정 스님 편지	10	공휴일을 비바람이 적시고 있네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12	순간의 한 마음이 세세생생을 좌우한다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17	대천신大天神
다실에서 / 류시화 시인의 시	20	옛날의 정원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21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소식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24년 10월 1일 발행 / 통권 356호 / 등록일 1999년 6월 23일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발행 편집인 덕일 / 기획 편집 홍정근

발행처 (사)맑고 향기롭게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팩스 741-4698

디자인 인쇄 디자인나경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대표메일 [clean94@hanmail.net](mailto: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실천하고 전파하기 위해 법정 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팩스 (02)3672-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대표메일 [kilsangsa@hanmail.net](mailto:kilsangsa@hanmail.net)

# 법을 보는 사람은 여래를 본다

- 법정 스님 1999년 설법전 석가모니불 점안식 법문 2

우리가 예불할 때 삼계도사三界道士 사생자부四生慈父 시아본사  
 是我本師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이라고 합니다.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 욕망의 세계, 물질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이것  
 을 삼계三界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로 낳는 중생, 알에서 낳는  
 중생, 습기에서 낳는 중생, 화에서 낳는 중생 [태란습화胎卵濕  
 化] 이것을 사생四生이라 합니다. '삼계의 길을 인도하는 스승이  
 시고, 모든 생물의 자비하신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근본이 되는  
 스승이신 석가모니불께 귀의합니다.' 이런 뜻에서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이라고 합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불상은 부처님의 모습을 형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쇠붙이라든가 목재라든가 혹은 돌이나 흙으로 만든  
 생명이 없는 무기물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  
 은 신앙적인 의미로는 단순한 무기물이 아닙니다. 실상實像이  
 아닌 것은 모두 허상虛像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청정한 본심, 우리 마음입  
 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진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대로 거기에 비춰 드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  
 인 의미를 모르면 우상이라고, 무기물이라고 취급하기가 쉽

니다. 부처님께 귀의하는 믿음이 간절하고 지극하고 아주 정성  
 스러울 때 우리들의 그 믿음의 혼이 불상에 배어듭니다. 그래서  
 불상은 조성되자마자 그 자리에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  
 에는 혼도 영험도 없습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지극 정성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공양 올리고 또 그 앞에서 꾸준히 게으름  
 피우지 않고 정진할 때 불상은 하나하나 실제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형상만 갖추어져 있지만, 우리의 지극  
 하고 청정한 신앙심으로써 시아본사인 석가모니불을 우리가  
 조성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정진할수록 단순한 조각이 아니라,  
 믿음의 혼이 뱀 부처님 모습으로서 변신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점안點眼이라고 했습니다. 점은 점친다고 해서  
 점자가 아니라, 부처님의 눈에 점을 찍는 의식입니다.

점안 의식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육안성취상 육안청정상 육안원만상  
 肉眼成就相 肉眼清淨相 肉眼圓滿相

'부처님이 육안을 청정하고 원만하게 이루어 주소서' 하는 염원  
 으로 시작해서 천안天眼, 혜안慧眼, 법안法眼, 불안佛眼, 십안十眼,  
 천안天眼, 무진안無盡眼까지 모두 갖추어 수많은 중생을 보살피  
 고, 구제해 달라는 염원에서 올리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절에 가서 불교 의식하는 것을 보면, 팔을 뿌리고,  
 오색실을 가지겠다고 아우성치는데, 제가 길상사에서서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자신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무속 신앙심이 너무 과열  
 돼서 그렇게 되었는데, 오색실은 시장에 가면 얼마든지 있습니  
 다. 또 잡귀를 쫓는다고 팔을 던지는데, 길상사에 잡귀가 어디  
 있습니까? 청정한 스님들이 살고, 청정한 신도들이 청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도량에서 잡귀는 붙지 않습니다.

스님들이 어수룩하게 정신 못 차리고, 신도들이 점집에 다니고, 무속에 도취되고, 사주 관상이나 보러 다니고 하면 잡귀가 붙는 것입니다.

사람도 못 먹는 팔을 왜 뿌려요? 의식이기 때문에 팔은 가져다 놔지만, 뿌리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더위에 자기 몸도 간수 못하는데, 오색실이 왜 필요해요? 처음에 절에 왔을 때 멧모르고 아무개 엄마가 극성떨어서 따라서 했다면, 이제는 부처님의 바른 법, 바른 가르침에 귀의해야 합니다.

오늘 모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설판 제자인 자성화 민영기 보살님이 처음 마음을 냈습니다. 가륵하고 고마운 마음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 불자들의 마음으로 이어져서 오늘 불상 점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동참한 우리에게서 각자의 신심과 정성으로 혼과 영험을 지닌 부처님의 참모습으로 거듭 거듭 조성해 가야 할 과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지극한 신앙으로서, 불퇴전不退轉의 정신으로서 여기 모신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도록 조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 숙제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불자들은 마음속에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씩을 다 모셨습니다. 형상으로는 한 분 밖에 없지만, 부처님 몸은 한 몸이 아니라, 천백억 화신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에 각자 누구나 모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화엄경 계송에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약인욕요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

‘만약 어떤 사람이 삼세(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땅히 법계의 성품, 우주 질서를 살펴보라. 일체유심조이니라.’

법구경 가장 첫 구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불교는 ‘마음심심’ 하나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근본 마음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름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청정한 마음에 천백억 화신으로 나투는 부처님을 불사에 동참한 인연으로 한 분씩 모셔가라는 그 뜻입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의 말씀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법을 보는 사람은 여래를 본다. 여래를 보려면 법을 보아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은 항상 부처님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상만 모신다고 해서, 관념적으로 모신다고 해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함께 살고 있는 이웃에게 그대로 몸소 실천할 때, 자비를 행할 때, 지혜롭게 살 때, 부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이 조금도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더운 날에 동참한 인연으로 모두가 성불합시다.

- 이 글은 1999년 8월 11일 길상사 설법전 석가모니불 점안 법회에서 법정 스님이 하신 법문입니다. 길상사 설법전은 일요 법회, 불교 대학, 불교 강좌, 수련회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전각입니다. 1999년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봉안하고, 탕화 대신 십대제자를 병풍 형태로 모셨습니다. 이후 2008년 5월 건물의 노후화와 공간 활용 등의 이유로 기존의 골조는 그대로 두고 새롭게 불사하여, 석가모니불 뒤쪽으로 천불千佛을 원형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 법문은 어떤 책으로도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 불살생의 공덕

옛날 라자그리하에서 5백 리쯤 떨어진 산속에 백여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뽕나무와 사냥을 업으로 삼아 짐승의 털로 만든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면서 살았다. 그러니 처음부터 농사를 지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귀신을 섬겼고,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부처님은 밝은 지혜로 그들을 구제할 수 있음을 살피시고, 그곳에 가서 한 나무 밑에 앉았다. 남자들은 사냥을 나가고 여인들만 빈집을 지키고 있었다. 여인들은 부처님 몸에서 눈부신 광명이 나오는 걸 보고 놀라, 그를 신처럼 숭고한 사람으로 여겼다. 다들 그 앞에 모여 절을 올리고 자리를 마련해 드렸다. 이때 부처님은 여인들을 위해, 산목숨을 죽이는 죄와 자비를 행하는 복을 말씀하셨다. 여인들은 일찍이 들어 보지 못한 설법을 듣고 모두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사죄했다.

“산에서 사는 저희들은 살생을 업으로 하기 때문에 짐승의 고기만 먹고 삽니다. 변변치 않으나마 음식을 올리고자 하오니 받아 주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여래의 법은 중생의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공양을 마치고 왔으니 염려 마십시오.

세상에는 먹을 만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남의

산목숨을 죽여 그것을 먹고 살아갑니까? 그 과보를 어찌하려고, 농사를 지어 다섯 가지 곡식을 먹고 중생들을 가없이 여겨야 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곤충이라도 죽음을 좋아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 몸만을 위해 그들을 죽인다면, 그 죄는 그림자처럼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비심으로써 산목숨을 죽이지 않으면 살아가는 세상마다 근심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자비심으로 살생하지 않고  
항상 중생들을 거두어 주면  
그는 흐린 세상에 살지라도  
가는 곳마다 근심이 없으리

살생하지 않고 자비를 행하고  
말을 삼가고 마음을 지키면  
그는 죽음이 없는 곳에 살아가는  
곳마다 근심이 없으리

언제나 사랑하고 가없이 여겨  
깨끗하기 성인의 교훈과 같고  
넉넉한 줄 알고 그칠 줄 알면  
그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리라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설법하실 때, 사냥 나갔던 남자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아내들이 여느 때처럼 마중 나오지 않은 것을 보고 잔뜩 화가 나서 밖에서 온 침입자(부처님)를 해치려고 했다. 여인들이 만류하면서 내력을 이야기했다. 남자들은 곧

허물을 뉘우치고 부처님께 사죄였다.

“저희들은 이 깊은 산속에 살면서 많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값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인자한 마음으로 행하고  
널리 사랑해 중생을 구제하면  
열 가지 복이 있어  
그림자처럼 그 몸을 따르리라

누워도 편안하고 일어나도 편안하고  
잘 때는 흥한 꿈 꾸지 않으며  
하늘은 자비와 사랑으로 보호하고  
독이나 흉기의 피해를 받지 않네

물이나 불에도 다치지 않고  
사는 곳마다 이익 얻으며  
죽은 후에는 범천에 올라가리니  
이것을 열 가지 복이라 하네

그들은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듣고 기뻐하면서 살생하지 않을  
것을 부처님께 맹세했다. 부처님은 라자그리하로 돌아와 국왕  
인 빔비사라를 만나서, 그들에게 농사지을 땅과 먹을 곡식을  
주라고 했다.

-〈법구비유경〉 자인품慈仁品

### \*법정 스님 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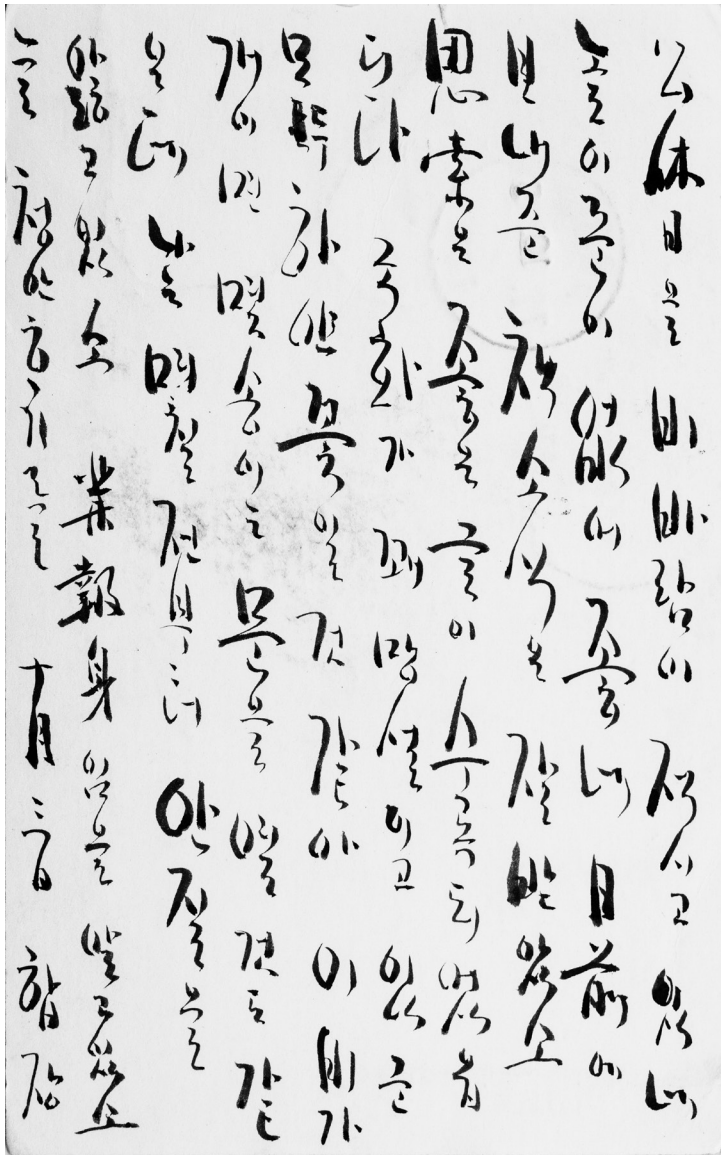
“자비심이 곧 부처.”라는 말이 있다. “하느님은 사랑이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인간의 사랑이 같은 인간에게만 베푸는 것으로 그친다  
면 그렇게 고귀할 것까지는 없다.

인간이 아닌 보잘것없는 생물에게까지 사랑이 보편화될 때, 그 사랑  
은 참으로 고귀하다. 사람에게 베풀 사랑도 모자라는 이 판국에 다른  
생물을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 대들 사람에게는 나도 달리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그런 일이 옳으냐 그르냐의 가치의식마저 없다면,  
아무리 뺏뺏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인간다  
운 주민은 아닐 것이다.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산목숨을 죽이지 않겠  
다는 불살생계 하나만으로도 불교도가 된 것이 얼마나 고맙고 다행  
한 일인가를 느낄 때가 더러 있다.

〈범망경梵網經〉 보살계본菩薩戒本에는 제1계로서 다음과 같이 말하  
고 있다.

“중생을 죽이지 말라. 목숨 있는 것이면 무엇이거나 제가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칭찬해 죽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  
나 저주로써 죽여서는 안 된다. 즉, 죽이는 인인(직접 원인)과 죽이는  
연緣(간접 원인)과 죽이는 방법과 죽이는 업으로 목숨 있는 것을  
죽여서는 안 된다. 보살은 항상 자비스런 마음과 공손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해야 하는데, 도리어 방자한 생각과 통쾌한 마음으  
로 산 것을 죽인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된다.”

3. 법정 스님 편지



공휴일(休日)을 비바람이 적시고 있네  
 놀이꾼이 없어 좋네  
 일전(日前)에 보내준 책 소식은 잘 받았소  
 사색(思索)은 좋은 글이 수록되었습니다  
 국화가 꽤 망설이고 있군  
 모두 하얀 꽃일 것 같아  
 이 비가 개이면 몇 송이는 문을 열 것도 같은데  
 나는 며칠 전부터 안질을 앓고 있소  
 업보신(業報身)임을 알고 있소  
 늘 청안하기를

10월 3일 합장

\* 이 편지는 법정 스님이 1973년 10월 백경림 반야화 님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 순간의 한 마음이 세세생생을 좌우한다

이런 자리에서 만나 뵈게 된 시절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10여 년 전에 처음 유럽 여행에 나섰습니다. 인도를 다녀온 뒤 청학 스님과 함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현지 불자들을 만나 법회도 갖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절이 하나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많아서, 그러면 파리에 절을 하나 세워 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지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건 사고도 그렇지만 모든 일은 한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한 생각에서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좋은 일은 반드시 올림과 메아리가 있습니다.

절을 세우려 할 때도 파리에 와 계신 화가들과 국내의 뜻있는 분들이 기꺼이 동참해 주셔서 이 자리에 현재와 같은 절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순간순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막연한 것 같지만, 부처로 보자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하는 저나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순간순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말하고, 무슨 생각

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바로 그 사람의 실제입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업業이라고 합니다. 원어는 카르마karma입니다. 각자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파리 시내에 사는 사람들, 지구 곳곳에 사는 이들이 모두 다릅니다. 쌍둥이도 엄밀히 보면 다릅니다. 얼굴은 바로 그 사람의 축적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얼굴이란 업의 꼴일 수 있습니다. 얼굴이란 업의 정신 상태입니다. 왜 그리도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다른지? 목소리와 눈빛이 다르고, 식성이 다르고, 취향이 다릅니다. 우리가 전생부터 그런 업을 쌓아 왔기에 그런 모습으로 지금껏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에피소드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당선 후 내각을 조각하는데 그의 선거 참모가 자신의 친구 한 사람을 천거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 요직에 써 달라고. 이때 링컨 대통령은 거부합니다. 선거 참모가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을 안 쓰냐고 링컨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기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부모가 빚은 것인데 하고 의아해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40세가 지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의 얼굴은 부모의 탓이 아닙니다. 걸핏하면 부모를 탓하는데 부모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올 때 의지해서 나온 의지처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청정한 본래의 마음을 지니기 위해 업을 맑히는 일입니다.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두루 행해서 그 마음을 맑히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간단명료합니다.



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어느 관료가 노스님을 찾아가 '어떻게 살아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노스님은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두루 행해서 그 마음을 맑히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뭔가 그럴듯한 말씀을 듣게 되길 기대했던 관료는 그런 것쯤이야 어린아이들도 아는 일 아니냐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스님은 누구나 잘 알지만 팔십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고 법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내일도 없습니다. 늘 오늘이고 이 순간입니다. 그러기에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사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 중 하나가 과거의 일에 연연하고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앞당기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과거와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면 현재의 삶이 소멸되고 맙니다. 거듭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순간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순간이 삶의 갈림길입니다. 한 순간 잘못 생각하여 돌이킬 수 없는 허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1970년대의 가전제품 선전 문구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인생의 전 과정에서 보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평생만이 아니라 윤회 사상에서 보자면 순간의 선택이 세세생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런 한 순간 한 순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원래부터 살인자가 어디 있습니까? 순간 잘못 생각해서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한 순간 한 순간이 갈림길입니다. 여러분은 착한 사람의 길이 나의 갈 길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착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기에 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쁜 순간의 고비를 넘어

일어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순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말하며,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늘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달마 스님 어록에 보면 '마음을 살피는 이 한 가지 일이 모든 행위를 조절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일이 업을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잔뜩 골이 나면 전혀 여유가 없게 됩니다. 활짝 마음이 열리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활짝 열린 마음이 우리의 본마음입니다. 겹겹으로 닫힌 마음은 본마음이 아닙니다. 번뇌요, 망상이며, 악마의 마음입니다. 빨리 돌려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아야 합니다. 어디에도 열리지 않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거기에 복잡한 인간관계까지 엮이면 업의 그물에 얽혀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본래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에, 살 만큼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겠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명예, 돈, 지위는 세상에 나와서 잠깐 내가 관리하는 것일 뿐입니다. 본래 내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본래 내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상처도 없습니다. 소유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살길 바랍니다. 마음의 빗장을 열고 사세요. 혹시 사소한 일로 친구나 가족 간에 마음 문을 닫고 살아왔다면, 오늘 저를 만난 인연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마음의 문을 닫고 삼니까? 내일 일을

누가 압니까?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금강경에도 있듯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어디에도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구애받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파리는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고, 고정 인구도 2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서울은 1,200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파리가 서울보다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서울이 파리보다 큰데 파리가 서울보다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크고 작은 것의 가치가 외형이 아니라 내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파리와 서울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것은 외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실에 따릅니다.

크다는 것은 그 그릇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넉넉한 마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각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그릇은 얼마나 되는지. 사람은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그릇이란 사람의 덕을 말합니다. 덕은 마음을 활짝 열어 내 이웃을 보살피고 이웃의 어려움을 거드는 일을 통해 쌓입니다.

파리에 와서 공부하고 직장 다니느라 서울에서 살 때보다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에 살면서 스스로 그릇을 키우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에 살면서 아름답고 큰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한다면,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 2003년 10월 8일 프랑스 파리 길상사 개원 10주년 기념 법회에서 하신 말씀을 정리 하였습니다.

## 5.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 대천신大天神

선재동자는 보살의 광대한 행에 들어가 보살의 지혜 경계를 구했다. 보살의神通한 일을 보고, 보살의 뛰어난 공덕을 생각하고, 보살의 큰 환희를 내고, 보살의 견고한 정진을 일으키고, 보살의 불가사의하고 자유자재한 해탈에 들어갔다. 보살의 공덕 지위를 행하고, 보살의 삼매의 경지를 관찰하고, 보살의 다 지니는 지위에 머물고, 보살의 크게 원하는 지위에 들어가고, 보살의 변재辨才의 지위를 얻고, 보살의 모든 힘의 지위를 이루었다.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타라발지성에 이르러 대천신의 소재를 물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성안에 있으면서 광대한 몸을 나타내 대중에게 법을 설한다고 했다.

선재동자는 대천신에게 가서 공손히 절을 하고 합장하고 서서 말했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으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듣건대 성자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 하오니, 말씀해 주소서.”

이때 대천신이 두 손을 길게 펴서 네 바다의 물을 움켜쥐고 얼굴을 씻으며 황금꽃을 선재에게 흘리고 나서 말했다.

“선남자여, 모든 보살은 보기 어렵고 듣기 어렵고 세간에 출현하는 일이 드물어, 중생 중에 제일이며 사람 중에 분다리화(梵陀

세화이다. 보살은 중생의 돌아갈 곳이며 중생을 구원하는 이며, 세상을 위해 평안한 곳이 되고, 세상을 위해 큰 광명이 된다. 미혹한 이에게 편안하고 바른 길을 보이고, 길잡이가 되어 중생을 인도해 불법의 문에 들게 하며, 법의 대장이 되어 지혜의 성을 수호한다.

보살은 이와 같이 만나기 어려우니, 오직 몸과 말과 뜻에 허물이 없는 이라야 그 형상을 보고 그 변재를 들으며 어느 때나 항상 그 앞에 나타난다. 나는 이미 보살의 해탈을 성취했으니 이름이 구름 그물[雲網]이다.”

선재가 말했다.

“구름 그물 해탈의 경지는 어떠합니까?”

이때 대천[大天]은 선재 앞에 금 더미, 은 더미 등 칠보 더미와 온갖 보배 더미와 장엄거리 더미와 여의주 더미를 산같이 나타냈다. 그리고 꽃과 화만과 향을 산더미같이 나타내고 선재동자에게 말했다.

“선남자여, 이 물건을 가져다가 여래께 공양해 복덕을 닦고, 모두 보시해 중생들을 거두고, 그들이 보시 바라밀을 배워 버리기 어려운 것들을 버리게 하라. 그대에게 이런 물건을 보여주고 보시를 행하게 하듯이 모든 중생을 위해 또한 그와 같이 하니, 나는 이 선근으로써 삼보와 선지식에게 공경 공양해 착한 법을 늘게 하고 위없는 보리심을 내게 한다.

어떤 중생이 오욕락을 탐해 방일하면 그에게는 부정한 경계를 보여주고, 성 잘 내고 교만해 언쟁을 좋아하는 이에게는 나찰귀가 피를 빨고 살을 씹는 등의 아주 무서운 형상을 보여, 놀라고 두려워 마음이 부드럽고 원한이 풀리도록 한다. 어리석고 게으른 중생에게는 나라의 법과 도적과 수재, 화재와 무서운 질병을 보여 두려운 마음을 내게 하고, 근심과 고통을 알아서 스스

로 힘쓰게 한다.

이와 같은 갖가지 방편으로써 불선행[不善行]을 버리고 착한 법을 닦게 하며, 바라밀의 장애를 버리고 바라밀을 갖추게 하며, 험하고 어려운 길을 벗어나 장애가 없는 곳에 이르게 한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구름 그물 해탈을 알 뿐이다. 그러나 저 보살 마하살들은 제석천왕과 같아 모든 번뇌의 아수라를 항복시키고, 큰 물과 같아 모든 중생의 번뇌 불을 소멸하고, 맹렬한 불과 같아 중생의 애욕수를 말린다. 또 큰 바람과 같아 중생들의 온갖 소견의 깃대를 꺾어 버리고, 금강과 같아 중생들의 ‘나’라는 산을 무너뜨리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염부제 마가다국 보리도량에 땅을 주재하는 신[主地神]이 있으니 이름이 안주[安住]이다. 그대는 그를 찾아가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선재동자는 대천에게 절을 올리고 길을 떠났다.

## 옛날의 정원

여기 이 숲에 오면 둥근 나무들과 황금의 벌레들이 있고  
 안으로 더 들어가면 잊혀졌던 옛날의 불꽃이 있다  
 새들이 부리로 그 불꽃을 물어날아 사방에서 빛이 터진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숲의 오솔길로 즐겁게 달려갔다  
 누군가 오래 전에 이 길에서 했던 말들의  
 메아리가 내 뒤를 따라왔으며 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삶의 고독함도 청춘의 방황도 그 뒷날의 일이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나는 숲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갑자기 비구름이 숲을 뒤덮고 모든 것들이  
 그 오솔길에서 덧없이 저버렸다  
 숲에서 돌아나오면서 그 옛날의 불꽃을 나는 잊었다

### 중앙모임 (02-741-4696)

#### ■ 맑고 향기롭게 정기 활동 안내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매주 목요일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 460여 가구에 밑반찬 2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설날, 추석)과 정월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김장 김치를 대상자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쉼 없이 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만발식당 급식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노년기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급식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만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발식당은 어르신들의 사정에 따라 무료 또는 4,000원을 부담하는데, 하루 8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셔서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을 찾으시면 됩니다.

#### ■ 숲기행 일정 안내

2024년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숲기행은 법정 스님 인연 사찰 “옛 절을 찾아서”로 진행됩니다.

진행일	장 소	접수일
10월 26일(토)	경북 김천 직지사	10월 1일(화)

- 참가비 : 회원 45,000원, 비회원 60,000원
- 점심 제공, 여행자 보험 가입
- 후원회원의 할인 기준 : 첫 회비 납부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최소 3만원 이상 후원하신 분에 한해서 할인 혜택 제공
- 참가 신청은 중앙모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2일(수)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책 읽기 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향기 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소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 연말 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 대구 모임 (053-753-8883)

####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심리치료, 상담, 정서지원 운영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사각지대(아동, 청소년, 홀로어르신) 반찬 지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 경로 급식 및 웃음치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9시
- 성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청도 운문사 봉사활동 :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8시30분 집결후 이동
- 저소득층 자활, 중독자 지원 / 보호시설종료(자립준비) 청소년·청년 지원

####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무소유 기행 / 아나바다 공유 사업 비정기 진행

#### ● 난치병 환우 돕기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함께' 운영(2층)

- 셀프 카페, 셀프 밥상, 공간 대여

#### ● 법정 스님 문화관 운영(5층)

#### ● 각종 자원봉사 활동(1365 등록 기관)

### 경남 모임 (055-266-0170)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등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광주 모임 (062-236-3129)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독서, 노래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교류

###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02-3672-5945)

#### 초하루 기도

- 일시 : 10월 3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 일시 : 10월 5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보름기도

- 일시 : 10월 17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지장재일

- 일시 : 10월 20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 관음재일

- 일시 : 10월 26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마가스님 열려라 참깨명상

'참 나를 깨우는 명상'

- 일시 : 매월 둘째주 토요일 14:00~16:00
- 장소 : 설법전
- 접수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 동참금 : 회당 1만원

##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선(禪)명상

- 일시 : 매월 넷째주 토요일 19:00~21:00
- 장소 : 설법전
- 기간 : 7월 27일 ~ 11월 23일
- 동참금 : 15만원 (총 5회)
- 접수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 \* 일요법회 - 영화선사 Master YongHua

영화 선사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위산사를 중심으로 위양종의 가르침을 포교하고 있는 분으로, 이번 일요법회엔 주지 덕조 스님의 초청으로 "미국 위양종의 정수"라는 주제의 법문을 열 예정입니다.

- 일시 : 10월 20일(일) 오전 11시
- 장소 : 설법전

### 외교관 초청 사찰 문화 체험 행사

- 일 정 : 10월 9일(수) 한글날
- 장 소 : 설법전
- 식 순 : 16:30 환영사  
17:00~19:00 사찰음식 워크숍 및 다도  
19:00~20:30 저녁 예불 및 '한성풍류' 음악 콘서트

### 중양절 (선망 부모 천도재)

- 일 정 : 10월 11일(금) 오전 9시 50분 ● 장 소 : 극락전

### 2024년 사랑나눔 연합바자회

- 일 정 : 10월 12일(토) 10:00~16:00
- 장 소 : 성북동 차 없는 거리(신한은행~현대 블루핸즈)

### 사경반 수강생 모집

- 기 간 : 2024년 9월 25일~2025년 2월 26일
- 시 간 : 매주 수요일 13:30~15:30
- 장 소 : 설법전
- 자 격 : 사경에 관심있는 누구나
- 동참금 : 20만원
- 인 원 : 50명
- 준비물 : 사경본(화엄경), 붓
- 사경순서 : 삼귀의례 - 발원문 낭독 - 당일 사경 강의 - 명상 - 사경(70분) - 당일 사경 독송 - 축원문 독송 - 반야심경
- 사경을 마친 사경본은 법당에 보관 후 회향식을 거행합니다.
- 접 수 : 길상사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길상사 이메일(kilsangsa@hanmail.net)로 신청, 종무소로 문의하세요.

##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후원** 나이스페이먼츠 시스템을 통해 후원자님의 신용카드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후원 방법을 신용카드 후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직접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회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은행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회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할 때, 직접 본회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정기 후원 · 회원가입

본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각 지부를 선택하여 후원 등록하거나, 각 지부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각 지역 모임 후원 계좌

#### \*중양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 하나 220-890015-10204

#### \*대구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 \*경남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 \*광주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